



지난 11일 광주체육중 강당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체육중 선수단 결단식에서 내빈들과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지난 7일 전남체육고 인의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남선수단 결단식에서 내빈들과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꿈 향한 도전'...광주·전남 꿈나무들 응비의 나라 퍼다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내일부터 부산 일원에서 열전 스타트

광주, 사전경기 낭보...체조 최원재·역도 진고는 다관왕 도전장 전남, '효자종목' 육상·태권도·복싱·씨름·바둑 무더기 금예고



BUSAN 2026

'보는 재미를 넘어, 하는 재미, 부산은 스포츠 다'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 아시아드경기장을 비롯해 56개 경기장에서 40개 종목이 펼쳐진다.

육상 등 37개 종목 1천90명(선수 662, 임원 428)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광주는 지난 17일 사전경기로 열린 조정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기분좋은 출발을 알렸다.

전국 체육 꿈나무들의 대추제인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오는 23-26일 부산시 일원에서 열전에 돌입한다.

광주는 지난 소년체전 남자 U12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최원재(광주체조협회)를 비롯해 역도 여자 U15 81kg급의 진고는(광주체중 3)이 다관왕에 도전한다.

남자 U15 레슬링 G110kg급 전제준(광주체중 3)과 복싱 편급 강자 김준재(광주체중 3)는 금메달 1순위로 꼽힌다. 지난 대회 여자 U15 소프트 테니스 준우승팀 신광중은 이번 대회 단체전 정상 탈환에 나선다.

남매, 자매가 함께 뛰는 이색 선수들도 눈에 띈다.

테니스 종목 김세영(살레시오중 2)과 세쌍둥이 동생 김세민, 선경, 은경(울곡초 6) 4남매, 체조 종목에서는 박유찬(광주체중 1), 헤빈(광주체중 2), 유빈(광주체중 3) 3남매, 핸드볼 최설, 최윤지매의 활약이 주목 받고 있다.

전남은 '효자 종목' 육상, 태권도, 복싱, 씨름, 바둑 등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육상 여자 U12 포환던지기 한지수(여수시전초), 여자 U12 80m 이라임(장성 중앙초 4), 남자 육상 U15 1,500m 김강석(전남체중 3)을 비롯해 태권도 남자 U12 38-42kg급 주재홍(무안해제초 6), 54-58kg급 강현우(보성초 6), 태권도 남자 U15-41kg급 윤서진(무안북중 2)이 금메달 유력 후보로 꼽힌다.

복싱 남자 U15 웰터급 김도완, 라이트밴텀급

박주현(이상 보성중 3)도 메달색이 관건이다. 씨름 남자 U15 경장급 조호진(순천 이수중 3), U12 소장급 정우찬(순천 팔마초 6), 바둑 남·여 U15세 단체전은 대회 5연패 대기록에 도전한다.

이밖에 단체전에 나서는 검도(남 U15 단체전), 하키(U15 남·여 단체전), 남자 핸드볼(남 U15 무안북중 단체전)과 개인전 사격 남자 U15 공기권총 단체, 수영 여자 U12 자유형 100m 임지울(여수 한려초 6), 테니스 여자 U12 개인전 김예울(강진동초 6), 레슬링 남자 U15 67kg급 김호연(전남체중 3) 등도 기대주로 예상되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에 대비한 강화훈련 실시 등 만전을 기했다"며 "그동안 최선을 다한 만큼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싱 남자 U15 웰터급 김도완, 라이트밴텀급

박주현(이상 보성중 3)도 메달색이 관건이다. 씨름 남자 U15 경장급 조호진(순천 이수중 3), U12 소장급 정우찬(순천 팔마초 6), 바둑 남·여 U15세 단체전은 대회 5연패 대기록에 도전한다. 이밖에 단체전에 나서는 검도(남 U15 단체전), 하키(U15 남·여 단체전), 남자 핸드볼(남 U15 무안북중 단체전)과 개인전 사격 남자 U15 공기권총 단체, 수영 여자 U12 자유형 100m 임지울(여수 한려초 6), 테니스 여자 U12 개인전 김예울(강진동초 6), 레슬링 남자 U15 67kg급 김호연(전남체중 3) 등도 기대주로 예상되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에 대비한 강화훈련 실시 등 만전을 기했다"며 "그동안 최선을 다한 만큼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청, 실업볼링연맹회장기 종합준우승

백승민 대회 2관왕...곡성군청 여자일반부 3인조 '금·은'

광양시청 볼링팀이 제28회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전국실업볼링대회에서 남자일반부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국가대표급 선수' 4명(국가대표: 김성탁, 유승호, 후보: 박상혁, 상비군: 백승민)을 보유한 광양시청은 지난 19일 상주월드컵볼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3인조 경기에서 김성탁·백승민·박상혁이 팀을 이뤄 함께 2천701점(평균 225.1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열린 5인조전(김성탁·박상혁·백승민·유승호·가수형)에서는 함께 4천374점(평균 218.7점)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백승민은 남자일반부 마스터즈에서 정상에 오르며 대회 2관왕을 달성했고, 박상혁은 공동 3위를 차지하면서 팀의 종합준우승 달성에 힘을 보탤다.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거머쥐

며 종합준우승을 차지한 광양시청은 지난해 전국실업볼링대회와 대통령기대회 종합우승에 이어 국내 실업볼링 강호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여자일반부에서는 곡성군청이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김현미·김예솔·김문정(A팀)과 손현지·박금난·이지원(B팀)이 출전한 3인조 경기에서 A팀이 2천603점(평균 220.7점)으로 금메달, B팀이 2천503점(평균 208.6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탄탄한 선수층을 기본으로 전 선수들의 고른 기량이 돋보였다.

개인전 마스터즈와 개인종합에서 동메달을 추가한 팀의 에이스 김현미는 금 1, 은 1, 동 2개로 대회를 마쳤다.



백승민 박상혁 김현미

박종남 전남볼링협회장은 "선수들이 힘든 훈련 속에서도 집중력과 팀워크를 발휘해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다가오는 제117회 전국체전까지 전남 볼링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수원FC위민, AWCL 결승행 불발



지난 20일 열린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에서 지소연이 페널티킥 실패 후 아쉬워하고 있다. 수원FC는 골대 불운에 지소연의 페널티킥 실패까지 겹치며 내고향에 1-2로 패해 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빛고를 체육인 건강복지 증진·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광주시체육회-에스웰 요양병원 '맞손'

광주시체육회와 에스웰 요양병원이 빛고를 체육인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체육회는 21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이석광 에스웰 요양병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체육회-에스웰 요양병원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빛고를 체육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에스웰 요양병원이 지역 선수 육성과 체육 발전을 위해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체육계와의 상생 의지를 함께 밝혔다. (사진)

이석광 원장은 "지역 체육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육인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시민과 체육인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에스웰 요양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체육인들의 복지 향상과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화순군청 임애지, 베오그라드 워너 토너먼트 금메달



화순군청 임애지가 20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63회 베오그라드 워너 토너먼트 여자 54kg급 결승에서 날라이 아렌(튀르키예)을 4대1 판정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임애지는 올해 아시안 게임과 유럽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한국여자대표팀 일원으로 유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복싱 대회 중 하나인 이번 대회에 참가해 금메달을 수확하며 아시안 게임 전망을 밝혔다. <연합뉴스·대한복싱연맹 제공>

KIA '찐팬' 조승희, 트리플에스서야·채원, NCT WISH 시은

22-24일 SSG戰, 승리 기원 릴레이 시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22-2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SSG와의 주말 3연전에 '찐팬' 연예인을 시구자로 초청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왼쪽부터 조승희, 트리플에스 서야와 채원, NCT WISH 시은 /KIA 타이거즈 제공

3연전의 첫날인 22일에는 걸 그룹 다이아 출신 배우 조승희가 시구자로 나선다. 조승희는 "고향을 대표하는 KIA 타이거즈와 함께하게 돼 정말 기쁘다. 선수들과 팬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와 즐거운 순간이 가득하길 바라며, 승리를 위해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3일에는 걸그룹 트리플에스(tripleS)의 멤버 서야와 채원이 각각 시구와 시타를 맡는다. 서야는 "광주를 사랑하는 만큼 KIA 타이거즈도 정말 사랑하는데, 이번에 시구를 하게 돼 꿈만 같다.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직관했던 추억들이 떠올리며 팬들과 하나 돼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채원은 "가족들의 고향인 광주에서 시타를 하게 돼 매우 뜻깊다. 마음속 특

별한 도시인 광주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4일에는 대세 보이그룹 NCT WISH의 멤버 시은이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른다. 남다른 팬심으로 타이거즈 '찐팬'임을 입증해 온 시은은 이번 시구를 위해 3년 연속으로 챔피언스 필드를 방문하게 됐다. 시은은 "항상 응원하는 팀인 KIA 타이거즈의 시구를 할 수 있게 돼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올해는 꼭 승리해서 '승리 요정'이 될 수 있도록 팬들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홍철기자